

사 도 신 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30장 (통456) 다 같 이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 도 말 은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으나,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항상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과 오직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 편 100:1~5 인 도 자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께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 씀 인 도 자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혹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찬양으로 불렀던 시편입니다.

온 땅을 향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당차게 선포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석 명절에, 이 시편 100편은 우리 가정이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키우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선한 목자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감사이듯,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명절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일상 속 작은 은혜들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아끼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본문 5절은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명절을 계기로 우리 부모세대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세대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의 고백처럼 추석 명절 동안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온 가족이 화목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인도자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예배 이후의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가족 간의 오가는 길과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대화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9장(통305).....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인도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추석 명절되세요.

2026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9.24 (목) - 9.26 (토)